

Anthony J. Tomasino 박사, 유대교, 세션 5, 알렉산더 대왕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no)입니다. 세션 5,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역사상 이 시점에서 페르시아는 이전과 같은 종류의 군사력을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던 시절은 거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기억력이 오래돼 관대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리스인들이 여전히 복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온갖 좋은 일에 너무 바빠서 그러한 야망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인들은 전혀 그리스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의 통치 아래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의 필립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때때로 우리는 사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들 중 일부가 그토록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이러스가 실제로 위대한 알렉산더라는 칭호를 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글쎄요, 그의 성격이나 심지어 그의 의로움이나 선함, 또는 그 칭호를 얻는 데 도움이 된 그런 종류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그것은 정말로 그의 업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만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작 33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짧은 생애에 이만큼 성취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그의 정권과 캠페인 등으로 인해 세계의 중심은 실제로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은 동쪽에 있었고, 바빌로니아인과 페르시아인과 함께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세계의 전체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리스인이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인.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대부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내 말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종종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는 10년 만에 당시까지 세계가 알고 있던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꽤 인상적이네요.

그는 서양과 동양 사상의 융합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화적 표현으로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 뒤로 물러나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알렉산더의 기원. 나는 이미 그의 아버지 필립을 언급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마케도니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을 야만인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만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에 있었고 꽤 강력해졌고 그리스인들 사이의 모든 분쟁에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인들로부터 배운 기술 중 일부를 숙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라기보다는 워크래프트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필립의 아들입니다.

필립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큰 전투 중 하나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포로였을 때 정복자들의 전투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새로 발견한 지식을 사용하여 여러 그리스 도시 국가를 정복하고 마케도니아인 아래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했습니다. 글썄요,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태어났을 때 실제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필립에 의해 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로부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뱀과 함께 잠을 자는 마녀라는 소문이 돌았고, 뱀의 모습으로 변신한 제우스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설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실제로 단순한 필멸의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필멸의 인간 그 이상이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필립은 아들에게 최고의 그리스식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이름을 알 수 있는 가정교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교육을 통해 그리스 문화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모든 그리스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문화가 세계의 다른 모든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를 묘사한 것입니다. 또는 올림피아스(Olympias)도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녀는 당시의 많은 여성들처럼 매우 강력하고 야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필립이 그녀를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을 뻔했는데,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은 힘이 세고, 육체적으로 당당한 사람이었으며, 매우 유능한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필립이 암살된 후 336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아내 올림피아스가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 암살당했는데, 올림피아스는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물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즉시 그의 용기를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반란을 일으켰고, 특히 테베 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알렉산더는 힘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북쪽에서 일어난 수많은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테베 사람들에 대한 그의 무자비함은 어느 정도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테베를 점령했을 때 도시를 파괴하고 건물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빨리 줄을 서서 그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필립의 야망은 이미 페르시아를 침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한때 마케도니아와 마케도니아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마케도니아인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를 따라 그리스 식민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침략을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그리스 군대가 그리스 식민지를 건너서 해방시켜 그리스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리스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귀한 십자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더는 4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했듯이 그의 초기 목표는 단순히 일부 그리스 식민지를 해방시킨 다음 아마도 더 큰 군대나 그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아시아로 진격했을 때 그는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알렉산더에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 이 시점까지 얼마나 무능해졌는지를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모두가 알렉산더가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는 이것이 약간의 케이크워크처럼 보일 것이라는 사실에 확실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식민지를 해방시킨 다음 소아시아를 통과하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의 초기 목적지 중 하나는 소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프리기아의 고르디움(Gordium)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고르디우스 매듭에 관한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황소 멍에처럼 서로 묶인 거대하고 깨지지 않는 매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르디움 사람들이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글썄요, 알렉산더는 매듭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조금 뽑았고, 저기에서 조금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 매듭을 반으로 잘랐다.

우리가 말했듯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는 것은 약간 불공평하고 코셔보다 약간 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렉산더의 다가오는 정복의 전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3세를 물리쳤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실제로 대규모 페르시아 군인 집단과 맞닥뜨린 것은 그라니쿠스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리스 자료에서는 숫자가 거의 확실하게 과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초인적인 승리로 들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직면한 군대가 자신의 군대 40,000명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라니쿠스(Granicus)에서 쉬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보존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군대는 그 전투에서 단지 110명만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주요 종류의 갈등과 같았습니다. 이수스 전투는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왕이 이끄는 군대를 처음으로 만난 전투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인들은 쉬운 승리를 거두었고 다리우스 3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들을 영예로운 손님으로 대접했는데, 이는 그의 공로였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의 상대적으로 작은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훨씬 더 큰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옵니다. 우리는 이미 갑옷의 우월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군대 유형의 우월성도 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완고한 전투 베테랑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가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인과 같은 사람들은 청소년기부터, 유아기부터 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었다. 아테네인, 테베인, 이오니아인 등 그리스의 다양한 도시국가들은 청년들이 성장하여 다른 도시국가에 맞서 싸우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과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훈련되고 잘 무장된 그리스 군인과 페르시아 제국 주변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된 사람들로 구성된 페르시아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아마도 잘 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즉 페르시아 군대의 군인 중 일부는 아마도 그리스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어려워지자 페르시아 군대가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방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상당히 무능하고 부패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이 후기 단계의 황제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군대가 불균형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방어구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술도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팔랑크스라고 불리는 전투 전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팔랑크스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종의 팔랑크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최전선에 있는 그리스 병사들은 무장하고 큰 방패를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패들은 서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창은 방패의 구멍을 통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페르시아 군대는 기병대에 의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위대한 기병이었고 활과 화살도 사용했으며 가벼운 화살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군대에서 쏟아지는 화살이 그리스 군인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팔랑크스 대형을 사용하면 그리스인들은 방패를 들어올리고 거의 뚫을 수 없는 벽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인이 사용한 주요 전술은 이 그리스 방진에 대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것은 알렉산더의 선전이다. 알렉산더는 키루스 대왕의 전술을 배웠으며, 현재의 페르시아 왕권과 행정부 를 무능하고 자신을 페르시아에 계몽과 질서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국.

그는 또한 몇 가지 겁주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그가 한 것 중 영리한 일 중 하나는 일반 말이 재갈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큰 초대형 말 재갈을 단조한 것입니다. 전투 후에는 그는 그들을 전장에 눕혀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초대형 말을 소유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말을 소유한 사람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알렉산더가 탁월했던

종류의 일이며,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싸우기보다는 행복하고 싶게 만드는데 사용한 이것과 다른 종류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소아시아를 거쳐 해방된 후 중동 해안을 따라 내려가 페니키아 지역으로 향하고 고대 도시 티레 에 이른다 . 두로는 당시에 건설되었던 방식으로 볼 때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구약성서에서 두로는 고대 세계의 위대한 노예 무역업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32년은 알렉산더가 티레 에 도착한 때입니다 . 이제 두로가 건설된 방식을 보면 여기 해안선에 주요 도시가 있고 해안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매우 강력하게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티레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사람들 등을 섬의 요새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해군 중 하나인 매우 유명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기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티레를 포위했습니다 . 나는 그것이 13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충분히 지냈다고 결정하고 느부갓네살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두로 성을 점령할 수 없다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글썄, 알렉산더는 처음에 바지선을 보내려는 일반적인 종류의 일을 시도했지만 티레 의 사람들은 바지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섬에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으나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는 섬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건설합니다. 완전히 섬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전쟁 엔진과 투석기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섬에 충분히 가깝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이 마침내 돌파하여 티레를 장악하는 데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 그리고 그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는 먼저 평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 봅시다. 그는 사신 몇 명을 두로 에 보냈고 , 두로 사람들은 그의 사절들을 죽이고 성벽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성벽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이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두로 의 끝이 오리라 말하였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

그래서 그는 두로를 점령한 후 해안을 따라 내려가 가자에 이르렀습니다. 가자지구도 저항했다.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근동 지역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332년에 우리는 알렉산더가 현재 근동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숨어서 더 이상 제국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 시점부터 시간을 좀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를 향해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 전설이 생겼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전설을 말하는데, 랍비들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전설이 말하는 것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잠시 들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대제사장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그는 알렉산더가 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상의 통치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자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 이는 자기도 꿈에 이 사람을 보았고 또 그 사람의 머리쓰개에 쓴 것과 여호와의 이름 곧 테트라그램마톤 곧 여호와의 이름을 보았음이더라 그는 그 이름을 보고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대표자인 줄 알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알렉산더가 그 당시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는 방향을 실제로 바꿀 시간도, 심지어 방향을 바꿀 의향조차 없었다는 증거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새로운 파라오로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자신이 이집트인들의 진정한 친구임을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하는 사이에 그는 Apis Bull을 보러 갑니다. 이것은 Apis Bull의 미라 중 하나입니다. 이제 Cambyses가 불경건한 행위로 Apis Bull을 죽였다고 말한 Cambyses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글썄, 알렉산더는 가서 Apis Bull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이 알렉산더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아문라(Amun-Ra)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됩니다.

그는 Apis Bull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마도 동양 정복에 대한 알렉산더의 비전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 문화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별의 무릎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동쪽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화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쌍한 동방의 야만인들에게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는 아마도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세계를 하나로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복장을 입은 것을 보고 그의 병사들은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선교사나 심지어 선지자의 사명과 더 비슷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로 모아서 그 부분보다 더 큰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한 후 한동안 그곳에서 보낸 후, 그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성서에 따르면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해 온 민족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앗시리아인들이 기원전 721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 다시 정착하여 제국 전역의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로 다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이 사람들은 와서 자신들의 이교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서에 따르면, 그들이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동안 사자들이 광야에서 나와 이 사람들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문제는 너희가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땅의 신을 숭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일명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에 사절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이 땅의 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은 제사장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어 그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이 항상 의심스러워했던 야훼교의 형태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글썄요, 구약성서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이교도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교에 대한 어떤 암시도 거의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못된 성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은 올바른 성전, 곧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잘못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신성함을 믿지 않는다면 선한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협상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다 백성과 유다 백성과 사마리아 백성 사이에는 이러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을 숭배했지만 서로 다른 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옛 제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반란을 일으키고 죽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자 알렉산더가 사마리아 위에 세운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진군하여 그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끓어오른 분노와 반감이 다시 표면으로 솟아올랐고, 물론 이는 두 당의 관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멸한 후에 많은 백성이 그리심 산과 그 지역과 세겜 인근 지역으로 도망쳤고, 알렉산더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재건을 도왔으며, 반면에 사마리아는 흥미롭게도 이 도시에는 그리스인들이 다시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마리아는 더 이상 사마리아 도시가 아니었고 이제는 그리스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페르세폴리스는 물론 알렉산더가 떠말아야 할 큰 목표와도 같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려면 페르시아로 가야 합니다. 그는 아직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서 페르시아를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더의 군대는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진입했고, 이로 인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자체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리우스의 왕도와 그의 궁전은 불에 탔습니다. 일부 소식통에서는 우물이 궁전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알렉산더가 마음이 바뀌어 궁전을 불태우려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다시 한 번 도망쳤고 알렉산더는 추격에 나섰습니다.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추월할 것이 불가피해 보이자 다리우스의 신하 중 한 명이 왕을 암살했고, 그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기원전 329년에 그를 붙잡아 처형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등에 목표물을 놓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정복을 통해 알렉산더는 이제 자신의 제국을 통합하려는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북부 지역을 확보한 후 여기 북부에서 이들 태수 중 한 사람의 딸을 만났고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록사나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전설적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빌론으로 가서 그의 본부를 세웠고 알렉산더는 바빌론을 그의 새로운 왕국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수사나 페르시아 도시들보다 바빌론이 흥미롭지만 아마도 기후가 한 사람에게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물건. 그러나 또한 기본적으로 고대 세계 전체에 바빌론에 대한 일종의 미신적인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옛날,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인, 훗날 아카드인과 앗시리아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초창기에도 바빌론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을 공격하는 것을 꺼렸다. 신들이 지상에 내려온 곳.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곳이 알렉산더 제국이 세워지기에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엄격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그는 또한 다리우스 3세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했습니다.

한 여자. 한 여자만. 그들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없었습니다.

일부다처제는 그리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왜 아내가 여러 명 있기 때문입니까? 글쎄요, 당신은 여러 명의 아내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수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사람들은 작은 가족을 갖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따라서 일부다처제는 그리스에서 결코 성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간음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럼, 다리우스 3세의 딸, 그리고 또 이것은 훌륭한 에반스처럼 그의 많은 그리스 군대의 눈썹을 정말 치켜뜨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족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당신의 합법성을 확립하는 방법 중 하나가 결혼 동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국에 대한 그의 통치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Roxanna는 말괄량이임을 입증하고 나중에 다른 아내를 암살했습니다. 따라서 왕국을 더욱 통합하기 위해 알렉산더는 키루스 대왕의 예를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원주민 통치자들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장교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상 누군가를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면 당신이 상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지 지도자들이 사물을 통제하도록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확실히 많은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자신의 군대에게 허용된 약탈의 양에 대해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동방 민족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비전, 즉 통일된 세계 문화에 대한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알렉산더의 야망은 결국 그의 병사들의 인내심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로 행진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마도 너무 멀리 간 것 같았습니다. 기원전 327년 봄,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는 인도로 진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 인도코끼리, 전쟁코끼리인 알렉산더가 전쟁코끼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생물 중 일부에게 애완동물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인도를 여행하는 동안 인도 사람들 사이에 몇 가지 흥미로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이곳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을 통과하는 그리스인들 사이에 헤라클레스의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헤라클레스의 환생으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이는 또한 그의 군대 사이에 약간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지역 통치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남겨두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결국 그의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회유하고 소리를 지르고 텐트에 들어가 부루통해 졌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울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군대가 전선의 끝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는 집으로 돌아가 그의 군대를 쉬게 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즐기기로 동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병사들의 약탈을 놔두는 인색함이 긴장감을 자아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캠페인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으며 이에 분개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대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영주의 후계자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매우 엄격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왕은 전사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하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향수가 없었어요.

동방의 통치에 수반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자신들의 무사왕이 어떤 의미에서는 계집애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의 신성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알렉산더는 이에 관한 갈등으로 인해 좋은 친구 중 한 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진출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좀 더 대중적인 교과서를 읽을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인을 모방하여 신격화되어 신처럼 대우받았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신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은 이미 그리스에서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왕국 주변에는 필립 숭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죽은 왕을 전혀 특이하게 숭배하지 않았지만, 살아 있는 왕을 특이하게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그리스 작가들의 대화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부하 몇 명을 투입하는 방법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그의 행위를 과거의 다른 위대한 왕들과 신들의 행위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헤라클레스와의 비교는 그들의 판매 포인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아문라(Amun-Ra) 신탁은 이미 그가 아문라(Amun-Ra)의 신성한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문라(Amun-Ra)가 신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제우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반신이라는 생각은 그의 마음 속에 잘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부하들 중 일부의 마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그리스 군인으로서 그들은 그의 군인 중 일부가 그를 헤라클레스의 화신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병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멋진 대화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업적 중 알렉산더가 복사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능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초인적인 힘에 관한 모든 것을 제외한다면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려는 것은 이 사람이 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를 신으로 숭배해서는 안 됩니까? 그리고 물론 알렉산더의 많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동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나는 그가 헤라클레스의 환생으로 환영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문제로 그의 부하 중 한 명과 싸웠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자신이 신뢰했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알렉산더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웬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술에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우리는 충분히 멀리 갔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는 남겨져 사물을 담당하게 된 마케도니아 관리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 중 일부가 키루스 대왕의 무덤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를 목숨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귀족들을 자신의 군대와 정부 모두에서 지도력 있는 위치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병사들이 그의 지도력에 반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교 몇 명을 해임하고 대신 페르시아인들을 지휘하게 했을 때 그들은 다리 사이에 꼬리를 끼운 채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알렉산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의 많은 장교들도 복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 페르시아 장교들과 권력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리우스 3세의 딸과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에서도 대규모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의 가장 고귀한 장교 80명과 군인 10,000명이 페르시아 여성들과 결혼하여 동서양의 통합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대중적 상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결혼의 대부분이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1년 이내에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알렉산더는 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누구에게나 멋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사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내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것을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의 융합을 만들기 위해 그가 의도한 바를 세계에 보여주는 지금까지 그의 캠페인에서 최고의 성취와 비슷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지닌 도시 20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곳은 실제로 동양 문화와 철학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산더의 가장 친한 친구인 헤파이스티온이 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더는 다시 한 번 우울증에 빠졌고 다시 한 번 폭음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군대를 철수 하고 일부 도시에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자신의 펑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정복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병사 중 일부가 이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알렉산더를 되찾았습니다. 친구가 죽은 후, 이곳에서 짧은 정복을 마친 후 알렉산더는 고향인 바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빌론에서 다음 원정을 계획했지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음주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폭음이 그로 하여금 독살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암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렉산더는 323세,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인생의 전성기인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는 다른 경우에도 몇 번 아팠습니다. 분명히 그의 목숨이 걸렸습니다.

역사가 플루타르크(Plutarch)는 알렉산더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여러 가지 나쁜 징조에 시달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볍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플루타르크는 알렉산더 시대 이후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의 포도주에 독이 있었나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시신은 꿀 속에 보존되었고, 그 후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안장되었고, 바빌론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무덤은 실제로 몇 세기 동안 남아 있었으며, 흥미롭게도 그 무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것이 서기 300년쯤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파괴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더의 제국은 확실히 세계에서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마케도니아, 소아시아를 거쳐 옛 페르시아 영토를 거쳐 이집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정복한 인도의 일부인 인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네, 일단 인더스 강에 도착하자 그의 군대는 "안돼, 우리는 그 강을 건너지 않을 거야. 이제 끝났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물러섰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제국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는 아내 록산나를 임신한 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녀의 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알렉산더의 왕국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알렉산더의 최고 장군인 페르디카스(Perdiccas)는

그의 장군들에 의해 최고 섭정으로 선출되어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제국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교육도 감독했습니다.

여러 장군들은 정복한 영토를 서로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지역에 특별히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늘리기 위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계자를 뜻하는 디아 도치(Dia dochii)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도코이는 앞으로도 유대인들의 삶에서 매우 큰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즉시 우리는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관용 정책을 뒤집고 즉시 원주민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특히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에게 해당됩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말했듯이 이집트 땅을 돈 버는 공장으로 거의 대했습니다.

이집트는 놀랍도록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로마제국 시대에는 지중해의 곡창지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야심찬 사람은 이 땅을 통치하고 철권으로 다스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페르디카스는 기원전 321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Perdikkas가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한 가지 방해 요소는 냉정한 머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사람을 한 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썄, 그들은 약간 미쳤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자신들의 권위 영역, 자신들의 국가와 국가로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15년에 우리는 디아도키족이 자신들만의 넓은 지역을 개척하는데 성공한 것을 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여기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은 외눈의 안티고누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를 가졌고 또한 팔레스타인의 많은 부분을 다스렸습니다. 셀레우코스는 그 지역에서 옛 페르시아 제국과 바빌론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장군인 카산더(Cassander)는 그리스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리시마코스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끊임없이 지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이 경계선은 이 기간 내내 급속히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이름도 많고 기억해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 중 오직 두 사람만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할 것이고, 그것은 태수부터 왕까지 셀레우코스과 프톨레마이오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록사나와 알렉산더의 아들은 그리스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카산더가 통치자로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Cassander는 기원전 310년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Alexander에게는 정신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왕좌에 대한 위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장군들은 알렉산더의 아들을 위해 제국을 구하려는 가식을 거의 버렸다.

그들 각각은 자기 몫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기원전 306년, 안티고누스는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스스로 왕의 칭호를 주장하기까지 여기에서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장군들도 곧 자신들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안티고누스는 기원전 302년에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영토는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계속해.

결국 셀레우코스는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세력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끊임없는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동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다양한 왕들과

그들 각자는 알렉산더 제국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들 중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방식, 특히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자신의 작은 영역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no)입니다. 세션 5, 알렉산더 대왕입니다.